

보도	2023.7.6.(목) 09:30	배포	2023.7.6.(목)		
담당부서	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	책임자	실 장	오 상 완	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 장	김 준 호	(02-3145-8422)

IPO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주관사 간담회 개최

- 발행사 · 주관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심사절차 운영방안 설명 -

1 간담회 개요

- 7월 6일(목) 금융감독원은 17개 증권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

- (일시·장소) '23.7.6일(목) 09:30,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
- (참석자) 금융감독원(공시심사실 실장, 공시심사기획팀장, 공시심사1~3팀장)
증권회사(KB, 신한금융, 대신, 미래에셋, 삼성, NH, 한투, 신영, 하나, DB, IBK, 한화, 키움, 교보, 하이, 유안타, 현대차) ※ '22년 이후 주관실적 있는 회사

- 최근 IPO증권신고서 심사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.

참고 '23년 IPO증권신고서 심사현황 (1~5월 중 상장 또는 신고서 제출 38건)

- ▣ (정정현황) 38건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(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제외)가 제출되었고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, 36건은 자진 정정
 -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,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
 - ▣ (일정변경) 38건 중 16건(42.1%)은 주요 일정(수요예측 및 청약일) 변경이 없었고, 나머지 22건(57.9%)는 평균 26일 지연 발생(최소 7일, 최대 125일)
 - 22건 중 14건(38.8%, 1회 효력재기산* 실시)은 평균 17일 지연되었고, 8건(19.1%, 2회 이상 효력재기산 실시)은 평균 44일(125일 지연된 1건 제외시 32일) 지연
- * IPO증권신고서는 제출(수리) 후 15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여 청약절차 진행이 가능하며, 정정신고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출일로부터 재기산됨(경미사항은 재기산×)

2 간담회 논의 내용

<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>

- **주관사 담당자**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통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
 - 정정요구 관련 **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** 같아 다소 혼선이 있고, 정정으로 수요예측·청약 등 **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** 평판 악화 등으로 **청약에 부정적 영향**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과
 - 효력발생일 직전에 정정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 받을 경우,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가감없이 개진하였습니다.
 - 이에 **금감원**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**일관되게 엄격한 심사과정**을 거치고 있으며
 -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고, 실제 주요 정정사유*를 보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며
- * 최근 IPO신고서 주요 정정사유
- ①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상이하게 선정
 - ② 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,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미기재
 - ③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 기재 보호예수 수량에 차이 발생 등
-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발행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, 이에 **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**이 투자 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**절차개선을 추진**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
<심사업무 운영방안 설명내용>

□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①**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** 및 ②**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**(발행사·주관사)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**수요예측일·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**하겠습니다.

- 이 경우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.

※ '23.1~5월 제출된 IPO증권신고서 38건 중 14건은 정정으로 1회 효력이 재기산된 결과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지연되었으나, 향후 제출 1주일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효력 재기산시에도 일정 지연이 7일 내외로 단축 가능

[예: 최초 신고서 제출 '23.6.1, 효력발생일 6.26 → 6.8 정정신고서 제출, 최종 효력발생일 6.30]

- 금감원도 회사의 리스크 요인 등을 직접 설명 듣고 심사 우려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추가 정정요구 유인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.
- 1주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정정사항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효력 재기산 여부를 판단합니다.

□ 다만,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**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***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**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** 하겠습니다.

* 횡령·배임, 회계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,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·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

- IPO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, 기업과 투자자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**주관사**도 법상 실사의무(Due Diligence)*가 엄격히 부여되어 있는 만큼 **주관사 업무의 신뢰증진** 차원에서 객관적 가치평가, 투자위험 기재 등 IPO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증권신고서·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·기재누락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(령§68⑤4가)

3 지속적 소통강화 및 심사업무 개선 추진

- 향후에도 **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**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**심사업무에 반영**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아울러 **심사업무 투명성** 제고를 위한 **정정요구 절차개선** 등 공시 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·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하겠습니다.